오늘의 경제지표

코스피 1,920.36 (1.35)
코스닥 538.09 (4.42)
금리 2.124 (0.012)
환율 1099.1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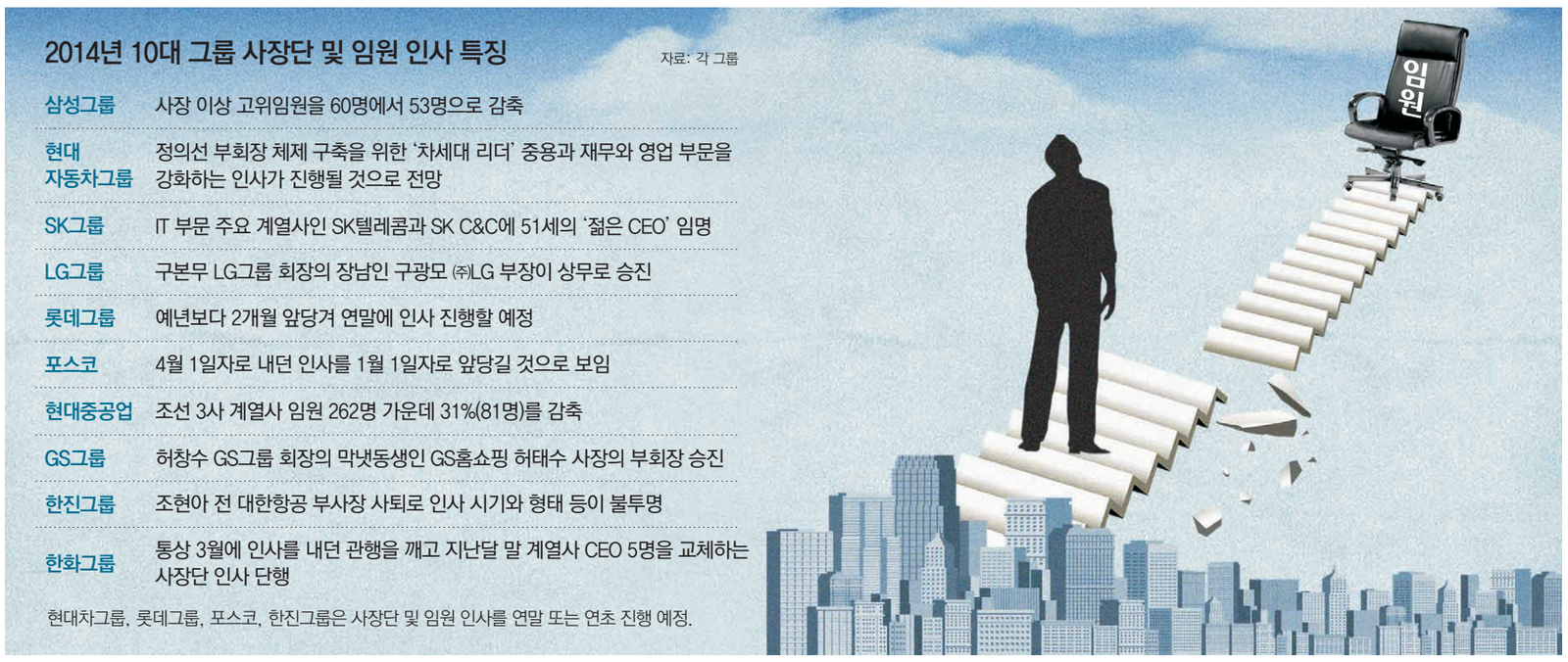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BUSINESS
Brunch Time

동아일보 2014년 12월 16일 화요일 제29038호 ㊵ dongA.com

“일단, 살아남자”

올해 대기업 人事 코드는 ‘생존’… 위기극복형 조직개편 잇따라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국내 대표 기업들의 임직원 인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중국의 거센 추격과 환율 변동, 새로운 성장 동력 부재 등 대내외적 악재로 고민하는 대기업들은 과감한 인사 혁신보다는 위기 극복을 위한 조직 안정화를 택했다.

재계 및 학계 전문가들은 15일 올해 대기업 인사에 대해 일제히 ‘생존’이란 키워드를 지목했다. 한편으로는 “3세 경영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친정체제 구축의 서막이 올랐다”는 분석도 나왔다.

● **군살 빼고 시기 앞당기고**

이달 초 사장단 및 임원인사를 발표한 삼성그룹은 사장단(부회장 포함)이 60명에서 53명으로 줄어들었다. 임원 승진도 지난해 476명에서 올해 353명으로 26%나 줄여 그룹 전체 임원은 2100여 명에서 2000명 안팎으로 감소했다. 삼성 관계자는 “직원들의 인력 감축은 최소화하되 임원 자리는 불가피하게 줄였다”며 “기존에 사장이 맡던 자리를 승진 없이 부사장에게 맡긴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실적이 추락한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서 이철환 사장 퇴임으로 비게 된 개발팀장 자리를 고동진 부사장이 승진 없이 맡은 게 대표적 사례다.

정유업종 불황으로 근심이 커진 GS그룹도 임원 승진자 수를 대폭 줄여 ‘조직 슬림화’를 꾀하고 나섰다. 특히 처음 임원을 단 상무 승진자는 지난해 29명에서 올해 16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임원 승진-발탁 대폭 줄이고
직원 인력 감축은 최소화
혁신보다 조직안정에 무게
삼성-현대車-SK 세대교체
3세경영 위한 친정체제 시동

위기 극복을 위해 인사 시기를 대폭 앞당기는 경우도 있다. 현대중공업은 9월 권오갑 사장 체제로 바뀐 지 한 달 만인 10월 중순 일찌감치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2분기(4~6월), 3분기(7~9월) 최악의 영업손실을 낸 위기 상황을 반영해 상무보 이상 임원 262명 중 무려 81명(31%)을 내보냈다. 포스코도 매년 4월 1일자로 인사를 내던 관행을 뒤엎고 이번에는 크리스마스 전후로 인사를 발표해 내년 1월 1일자로 발령을 낼 방침이다.

신동엽 연세대 경영학부 교수는 “임직원 규모를 줄이고 경영진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것은 위기 시 기업 인사의 전형”이라며 “기업들이 과감한 정면 돌파보다는 ‘일단 생존한 뒤 다음을 모색하자’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업들의 이런 인사 전략이 근시안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동일 연세대 경영학부 교수는 “위기에서 살아남은 기업 중 상당수는 위기 뒤에 필요한 투자와 전략 부재로 도태되거나 어려움을 겪는다”며 “최근 주요 기업의 인사 움직임을 보면 지나치게 움츠러들어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 **3세 경영 부각과 세대교체**

일부 대기업의 경우 ‘젊은’ 최고경영자(CEO)를 중용한다거나 전체적인 임원 연령대가 낮아진 것도 중요한 특징 중 하나로 꼽힌다.

삼성그룹의 경우 만 60세 이상 사장이 대거 물러나며 신임 사장단의 평균 연령이 53.7세로 지난해(54.3세)보다 낮아졌다. 임원 역시 평균 연령 46.7세로 최근 4년 중 가장 젊다.

SK그룹은 주력 계열사인 SK텔레콤과 그룹 지배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SK C&C의 CEO로 51세인 장동현 사장과 박정호 사장을 선임했다. 두 사람 모두 ‘차세대 리더’로 입지는 탄탄했지만 이번 인사에서 부각될 것이란 예상은 많지 않았다. SK그룹 내부에서는 젊은 피 수혈을 통해 고강도 인적 쇄신을 추진하려는 최태원 회장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많다.

글로벌 인사조직 전문 컨설팅업체인 타워스왓슨코리아의 김기령 대표는 “본격적으로 전면에 등장할 준비를 하고 있는 3세 오너(삼성)와 상대적으로 젊은 오너(SK)가 자기 세대 인력들을 대거 발탁하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그룹도 이미 세대교체가 진행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2월 최한영 현대자동차 상용담당 부회장이 물러난 데 이어 4월에는 설영흥 현대차 중국사업총괄 부회장이 퇴진했다. 10월에는 박승하 현대제철 부회장, 이삼웅 기아자동차 사장도 잇따라 물러났다. 산업부 종합

▶B2면에 계속

주 질 문	세 부 질 문
A. 어떤 일을 진행하며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잘 활용했었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황 및 과제] 사례와 관련해 당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B. 팀의 리더로서 구성원들에게 해야 할 일을 효과적으로 잘 배분함으로써 맡은 일을 잘 수행할 수 있었던 사례가 있다면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역할] 당시 지원자께서 맡았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C. 어떤 일을 진행하기에 앞서 팀 내 구성원들에게 이를 설명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었던 경험이 있으면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동] 말씀하신 사례와 관련해 구성원들의 설득을 이끌어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습니까? [결과] 그래서 결과는 어땠습니까?

대한상공회의소와 고용노동부가 공동 개발해 보급하고 있는 ‘핵심 직무역량 평가 모델’ 중 경영관리직군에 해당되는 경험 면접 평가지. 대한상의 제공

商議 개발 ‘핵심 직무역량평가 모델’ 살펴보니

“면접때 거짓말, 귀신처럼 콕”

“팀의 리더로서 구성원들에게 일을 효과적으로 잘 배분함으로써 맡은 일을 잘 수행했던 사례가 있습니까?”

국내 기업 경영관리직군에 응시한 구직자는 면접장에서 이런 내용의 질문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질문은 대한상공회의소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만든 ‘핵심 직무역량 평가 모델’에 나온 것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대한상의의 평가 모델은 지난해 30개, 올해 180개 기업에 보급됐다. 현대모비스 현대해상화재보험 대우건설 에쓰오일 에어부산 한국도로공사 남동발전 LX대한지적공사 등이 받아갔다. 스펙 위주의 채용을 타파하고 맞춤형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다.

구직자 답변 진실여부 검증
소통-팀워크-언어력 중요
올해 180개 회사에 보급

면접장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구직자들이 새겨야 할 원칙은 ‘거짓말 금지’다. 평가 모델에 따르면 면접관들은 “당시 상황을 이야기해 달라” “지원자가 맡았던 역할은?” “구성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 “결과는 어땠나” 등 질문을 던져 대답이 진실인지 끈질기게 검증한다. 답변에 대해선 증거를 제대로 제시했는지 5점 척도로 평가한다.

토론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자질은 소통 능력이다. 샘플로 나온 토론 문제는 “1인 가구를 위한 카드상품을 개발하라”고 한 뒤 국가별 1인 가구 비중, 1인 가구 증가 요인, 1인 가구의 소비 지출액 등을 제시했다. 방창률 대한상의 기업인재평가사업팀장은 “토론 면접에서는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상대방 의견을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제한된 시간 내에 객관식 문제를 푸는 역량 테스트(인적성 검사) 문제 샘플은 50%가 지문을 읽고 푸는 언어능력 문제로 채워졌다. 사무라이 자본주의, 카스트로 자본주의, 카우보이 자본주의, 사회주의적 자본주의 등 각종 자본주의에 대한 설명을 늘어놓은 뒤 “글에서 다룬 것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하는 식이다.

대한상의는 구직자에게 보편적으로 중요한 역량 13가지로 △조직이해 △문제 해결 △도전정신 △팀워크 △소통 △글로벌 마인드 △목표의식 △대인관계 형성 △윤리의식 △성실성 △수리능력 △정보기술 활용 △자기개발을 꼽았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세계최고의 국제공항도시 영종도 그리고... 한국판 마카오 미단시티

4천만원대 투자시 월 임대료 83만원

HOTEL L'ART CITY·PARK 호텔 라르 시티&파크 개별등기분양

영종도 복합카지노 시티… 미단시티

영종도복합카지노시티건설 시작과 더불어 비즈니스호텔로서 주가가 급상승한 “호텔라르시티&파크437”이 최근 여의도 금융 중산층 30~50대 스마트 부동산시장에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다.

참고로 호텔에서 인천대교를 이용하면 영종도 미단시티카지노와 파라다이스호텔 카지노까지 20~30분 이내 도착이 가능하다. 이는 국내 대기업은 물론 정부와 외국기업이 함께 개발에 참여하여 수 조원을 들여 조성하는 영종도 카지노시티사업에는 7성급 특급호텔이 계획 되고 있어, 최근 국내 관광산업의 대세로 떠오른 중국인관광객(요우커)의 숙박요건의 필수인 중저가에는 맞지 않아 이를 대체 할 근거리에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가 풍부한 내륙역세권의 비즈니스호텔 필요성이 급부상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변관광단지는 외국인 관광객이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 입 · 출국시 거쳐가는 중심지역으로 호텔업계에서는 최적의 입지로 정평이나 있다. 또 인근 22,000여개의 산업공단을 방문하는 해외바이어가 많아 배후 수요도 탄탄하다.

인근에는 연간 천만 명에 이르는 소래포구와 소래습지생태공원 방문객의 숙박 수요 등 최고의 입지에 자리해 있으며, 제2경인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제3경인고속도로로 이어지는 최적의 교통입지도 갖추고 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공항과의 인접성이 뛰어나다 보니 여행사들로부터도 사전 입지 선정 및 객실 선정에 있어 문의가 들어오고 있으며, 국내 탑 여행사인 하나투어와 롯데관광과 MOU체결을 하였다.

저금리시대… 실투자금대비 연14%대 수익

현재까지 전국 최고수준의 객실가동률을 보이고 있는 인천 남동구 중심 역세권에 신축 수익형 분양호텔인 호텔라르시티&파크437는 도시조망과 공원조망에 따라 각각 시티동(지하3층~지상15층 207실)과 파크동(230실) 등 트윈형으로 조성된 이 호텔은 총 437실이며, 인근 수익형 호텔 중 최다 객실규모를 자랑하게 된다.

전용면적 18㎡~22㎡대로 다양한 객실로 구성되며, 객실 발코니를 비롯해 공간효율성을 극대화한 욕실 슬라이딩도어, 로비, 옥상 정원 등의 내부 설계가 눈길을 끈다. 또한 복층구조의 스카이라운지와 기존 수익형 호텔과는 차별화된 레스토랑과 비즈니스센터, 휘트니스센터들이 들어서 투숙객의 편의를 높였다.

투자자의 관심 부분인 수익의 안전성은 시행부터 운영관리까지 일체형으로 호텔라르가 총괄 진행하며, KB부동산신탁에서 관리를 맡아 투자 안정성도 높였다. 무엇보다 위탁방식이 아닌 직영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운영회사에 위탁지급 비용이 없어 수익률도 높이고 시설관리도 철저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자산관리도 한결 수월 할 것이라는 점이다.

호텔라르시티&파크는 투자자에게 계약금 10%, 중도금 60% 무이자, 객실개별등기 등의 금융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수도권 투자자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서울 강서구 목동 지하철5호선 오목교역 앞에 모델하우스가 위치해 있다.

분양문의 1566-5092